

문화

“리걸클리닉, 학생들에게 정신적 쉼터가 되도록 할 것”

리걸클리닉 무료법률상담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올해 초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산하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인 백령도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리걸클리닉은 우리학교 법전원 산하의 법률 상담센터로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곳이다. 학생들도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우리학교 학생들은 리걸클리닉이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고 있다. 우리신문은 리걸클리닉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이동훈 학생(법전원 7기)과 리걸클리닉 범경철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리걸클리닉은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하의 법률상담센터로 우리학교 학생들이 봉사차원으로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 및 구조 활동을 진행하는 곳이다. 리걸클리닉에서는 상담 요청에 대해 간단한 법률적인 조언, 고발·고소와 관련된 문서 작성을 도와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 리걸클리닉 범경철(법학) 센터장은 “리걸클리닉은 법률 상담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봉사할 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훌륭한 실무 경험의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상담팀 1차 의견서 작성
자문교수 검토 후 최종 완성

지난 2015년에 리걸클리닉에서 진행한 상담은 80여 건이었다. 이 중에서 30여 건은 방학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이뤄졌으므로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진행된 상담은 50여 건에 불과했다. 전체 학교 구성원과 학교 근처 지역사회 주민들의 수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이에 대하여 범 센터장은 “법률문제가 다소 개인적인 일이라 공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걸클리닉의 이용률은 저조하지만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우리학교 리걸클리닉 홈페이지(<http://khlc.khu.ac.kr>)에 접속해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만 하면 된다. 범 센터장은 “상담



① 백령도 무료 법률 상담활동 사진 ② 백령도에서 찍은 단체사진

요청이 들어오면 전화통화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토의, 판례분석, 법률연구를 통해 1차 의견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검토된 1차 의견서는 자문 교수들의 검토를 거쳐 최종 완성된다. 상담을 신청한 학생은 이 과정을 거쳐 법률자문을 받게 된다.

다만 학생들이 수업과 병행하여 법률구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의견서를 빠른 시간 내에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실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다양한 판례를 살펴보고 상담을 진행해 늦어지기도 한다. 이동훈(법전원 7기) 군은 “보통 최종 의견서가

나올 때까지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며 사건에 따라 길어질 경우에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뢰인이 빠른 상담을 요구할 경우에는 자문 교수가 직접 나서 빠르게 법률상담이 진행된다. 범 센터장은 “가압류 건과 같이 시각을 다투는 사건은 자문 교수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빠르게 법률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률상담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은 상담원들이 변호사가 아닌 만큼 법률상담 능력에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다. 범 센터장은 “학생들만이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업에 종사했던 전문가인 자문 교수의 최종

확인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만큼 내용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자신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리걸클리닉에는 법전원 학생 뿐 아니라 민법, 헌법, 상법, 세법 등 각 분야별 10명의 자문변호사가 편성돼 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리걸클리닉에서는 법률 상담이 개인에게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이 군은 “상담을 맡기 전에 의뢰인의 비밀을 지킨다는 서약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범 센터장은 “법률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비밀누설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비록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아직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예외 변호인으로서 이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어길 시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리걸클리닉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주로 가정폭력·이혼·유산 상속 등과 같은 가정사에 대한 것을 상담한다고 한다. 하지만 리걸클리닉에서는 성추행, 임금체불 문제, 부동산 임대료 관련 문제 등과 같이 학생생활에 밀접한 모든 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이 군이 진행했던 상담의 경우에는 학교 점퍼 하자 문제로 인한 상담도 있었다. 이 군은 “우리학교 어느 학과에서 학교 점퍼

의 하자 문제로 제작 업체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업체가 이를 거부해 소송이 일어났다”라며 “1심 재판 결과 학생들이 승소했던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리걸클리닉은 큰 비용이 드는 법률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있다.

“센터는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하길 바라”

또한 올해부터 우리학교 근처의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법률관련 교육도 진행한다고 한다. 이 군은 “법률 상담을 통해 보다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참고 넘어가지 말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리걸클리닉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범 센터장은 “리걸클리닉이 학생들에게 영혼의 안식처이며 정신적 쉼터가 되도록 하고 싶다”며 “센터는 항상 열려 있으므로 언제든지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소외자와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리걸클리닉. 그들의 노력으로 우리학교 모두의 법률적 권리가 올바르게 지켜지길 기대해본다.

연구개발비(R&D) 부정수급 신고 안내

신고 대상

연구개발비(R&D) 편취, 횡령, 부당집행 등 부정사용

- 연구과제와 무관한 장비, 자사 물품 구입
- 연구기자재, 재료 구입비 부풀리기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임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산
-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면서 횡령하거나 개인용으로 사용
- 기존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하여 연구개발비 편취 등

신고 상담

전국 국번 없이 ☎ 110

신고 접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 홈페이지 : www.acrc.go.kr
-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 팩스번호 : (02)2110-0678
- ▶ 우편·방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 처리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등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